

## 20

# 명품 생태 체험 마을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군위군 산촌생태마을조성 : 석산리 생태마을사업

2010년 귀농인구는 4,067가구 9,732명. IMF 이후 생계형 귀농이 생겨났고 이후 경기 불황으로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은퇴 귀농도 유행이 됐다. 귀농자들의 연령대도 젊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11년 현재 캠핑 인구는 100만명 시대. 불황에서도 캠핑 산업은 활황이다. 주말이면 산들과 바다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로 고속도로는 몸살이다. 답답한 도시의 한 가운데에서는 도시 생활이 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다. 혹은 '집 속엔 길이 없다'는 한 시인의 쇠구처럼, 음풍농월, 천석고황, 이제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들어가는 일은 혹자에게는 주말의 일상이, 혹자에게는 끝없는 동경의 삶이 되었다. 그리고 마치 중독처럼 사람들은 더 깊은, 사람들이 발길이 더 닿지 않은 곳을 찾아 헤맨다. 군위군의 석산리는 외지인이 거의 찾지 않는 오지 마을이었다. 마을 일대는 해발 고도 600~800미터에 달하는 군위 최고의 오지 산촌 마을로 꼽힌다. 83가구 180여 명의 주민이 산과 비탈진 밭에서 버섯, 대추, 배추, 아콘, 마 등을 재배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오지 마을이 최근 명품 생태 체험 마을로 변신해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아주 깊은 산중의 오지였기에 그만큼 자연 생태는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고, 당연히 더 자연스러운 자연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은 석산리 생태체험 마을에서 발길을 멈춘다.



## 군위댐으로 인한 피해가 전화위복

탐들, 석정, 유사골 3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석산리는 산림이 94%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이 청정지역의 자연 환경과 풍부한 산림 자원에 의존하며 평화롭게 살아왔다. 그러나 마을에 군위댐이 건설되면서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석산리는 인근 마을이 수몰되고 이주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군위댐이 세워지면서 경북 중부지역(군위·의성·칠곡)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용수 3천800만㎥ 확보가 가능해졌고 310만㎥의 홍수조절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러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 것이다.

군위군은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지역민 간의 갈등 및 소득 격차도 점점 커질 것을 우려하던 중 석산리의 오지와 같은 자연 생태를 이용해 생태 체험마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발상을 했다.

특히 석산리는 아연을 채취했던 폐광산 동굴이 산재해 있는데, 이 동

굴에서는 한여름에도 14도 이하의 냉풍이 발생하고 종류석과 박쥐 등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동굴체험 등의 학습장으로 이용이 가능했다. 또한 산림자원이 워낙 풍부하고 인근에는 삼국유사의 저술지인 인각사, 일연공원, 군위 정곡자연 휴양림, 화산산성, 신비의 소나무, 아미산 등산로 등 관광 자원이 주변에 산재해 있었다. 군위댐 건설로 수변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개발을 추진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관광객들은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고 지역민들은 일정한 소득원이 생기는 것이니 전화위복이요 일석이조인 셈이었다. 지리적 조건도 대구와 구미 등 인근 대도시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았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석산리 마을 주민 6명으로 구성된 산촌생태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선견지 견학 및 수차례의 주민 간담회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2007년 8월에 산림청 중앙심사결과 산촌마을 사전 설계 대상 마을로 선정되는 쾌거의 기쁨을 안았다. 이후 2008년 3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주민간담회 2회, 주민설명회 5회, 선견지 견학 2회, 용역설계 보고회 1회 등을 추가 실시하여 2008년 10월에 기본 계획(안)에 대한 도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2년에 걸쳐 토목, 건축 체험시설 소득단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사업비는 산림청으로부터 포괄사업비 12억 8천만 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을 지원받았으며 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와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주민자율 공동기금 1억 원을 조성, 건축부지 6,605평방미터를 매입했고 체험시설 부지인 한방산림욕장 932평방미터와 약바람방 582평방미터를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사업비를 확보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소관 연관사업인 사방댐 설

치, 숲 가꾸기, 산약초 재배단지 임도시설 등을 집중 투자했고, 자연 회귀마을 조성 도시범사업비 3억 5천만 원, 문화관광부 소관 명품 테마로드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 주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해당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했다.

## 최대한 자연스러운 자연을 만나게 하다

석산리 산촌 생태체험 마을의 테마는 크게 △산바람 약바람 관광 △산촌 문화 체험 △건강마을 체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바람 약바람 관광은 마을 내에 인위적인 무엇인가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을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이다. 기존에 있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관광, 바로 이것이 명품 생태 체험이라는 판단이었다. 게다가 아미산은 기암 괴석이 많아서 작은 설악이라고도 불린다. 산이 작아 보이지만 산세가 훌륭하고 바위 틈 사이에서 자라 짧게 뻗은 소나무들이 분재 같은 모양을 보이며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게다가 이 주변과 인각사, 화산산성 등이 이어짐으로써 관광객들은 군위군의 천혜 자연과 역사 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산촌 문화 체험은 숙박과 갖가지 체험이 함께 이루어진다. 산촌문화 체험관과 숙박시설로 구분되는데 산촌문화 체험관은 세미나실 1실, 산촌문화 체험관 2실로 나뉘어져 있다. 세미나는 30명이, 산촌문화 체험관은 각각 10명과 6명이 수용 가능하다. 체험 프로그램은 모노레일(1.7Km, 약 1시간 소요), 버섯 재배지 체험, 산약초 재배지 체

## | 추진 세부 일정 |

일자별	추진내용	비고
2007. 3. 16	석산리 산촌생태마을사업 신청서접수	석산리—군위군
2007. 3. 29	2008 산촌생태마을사업 대상지 선정보고	군위군—경북도
2007. 7. 05	'08산촌생태마을 대상지 중앙심사(현장방문)	중앙심사위원
2007. 8. 27	'중앙심사결과' '08년 사전설계 대상마을로 선정	경북도—군위군
2008. 1. 25	개발 및 중점투자방향설정을위한 주민간담회개최	군위군
2008. 2. 26	군위군투.용자 심사의뢰(심사의결:2008. . .)	산림—기획감사
2008. 2. 28	기본및실시설계비 보조금 교부결정(84,000천원)	경북도—군위군
2008. 3. 10	설계용역시행 및 계약	군위군
2008. 3. 27	설계용역에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참석26명)	산림조합중앙회
2008. 4. 03	마을현황조사 및 주민회의개최	산림조합중앙회
2008. 4. 16	'08년도 상반기 투.용자심사위원회 개최—적정	군위군자체
2008. 4. 22	마을컨설팅설정 및 선견지견학추진 주민회의개최	군위군, 산조중
2008. 5. 03	주민 선견지 견학(산청, 함양, 하동) —45명	군위군 주민
2008. 5. 28	주민회의(건축부지선정 및 건축계획협의)	군위군, 산조중
2008. 6. 11	기본계획(안)주민설명회(마을회관)	군위군, 산조중
2008. 6. 12	산촌생태마을조성기본계획(안)도합동심의회개최	성주(5개시군)
2008. 8. 15	투자계획수립 현장조사	산림조합중앙회
2008. 8. 27	기본계획(안)주민설명회 최종	산림조합중앙회
2008. 9. 10	기본계획(안)군보고회 개최(군수, 의원, 실과장등)	환경산림과주관
2008. 10. 7	기본계획(안) 제출	산림조합중앙회
2008. 10. 9	기본계획(안) 도승인 요청	군위군—경북도
2008.10. 23	기본계획(안) 도승인	경북도—군위군
2008. 10.	재해환경성검토 협의	군위군—경북도
2008. 11. 5	설계서 납품	산조중—군위군
2009. 01. 5	설계검토 및 심사	자체
2009. 9. 14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군위군
'09. 2. 11~11.16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토목)시행	동락건설(주)
'09. 3. 03~09.01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전기외선)시행	태일전기
'09. 3. 25~07.02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모노레일)시행	한국모노레일
'09. 6. 12~11.12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홈페이지)시행	도미노웹
09. 12. 3 ~'10. 3. 11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오수정화조)시행	(주)엠비엔
'10.4. 2~8. 30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건축)시행	삼전건설(주)
'10. 4. 09~8. 30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통신공사)시행	보광통신
'10. 4. 16~8. 30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전기내선)시행	라인기업
'10. 12. 8~'11. 1. 14	산촌체험시설 보강(냉풍용 체험)	(주)화성건설





진목

충동도

신약초 황토방



모노레일



황토찜질방



황토방



동굴체험장



별자리방



별자리방



모노레일

험, 폐광산 동굴 체험, 산림욕 체험이 있다. 숙박 시설은 산약초방(산양삼방, 산더덕방, 산수유방 총 3실), 별자리방(북두칠성방, 오리온방, 곰자리방 총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중 등산로와 한방산림욕장, 바베큐 파티가 가능하다. 이뿐이라! 여름에는 냉풍 자연바람방과 야외 물놀이장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황토찜질방 이용이 모두 무료로 가능하다.

건강마을 체험은 산약초 재배지와 3대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석산한약방을 연계한 석산한약방 체험과, 두충나무 숲에서 산림욕과 명상을 하는 두충나무 산림욕장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많은 생태체험장은 방문 위주의 시설로 꾸며졌으나 석산리 산촌생태 체험장은 체류형 숙박으로 운영되어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2007년에 가구당 평균 소득은 약 1천 7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2,475만 원으로 약 1.4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본에 충실, 체계적인 계획 수립

석산리는 일단 오염되지 않은 산림 환경을 가진 큰 장점 외에도 몇 가지 사업 추진이 용이한 점들이 있었다. 주민 화합이 잘 되다 보니 추진위원회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는 이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다는 점도 작용을 했다. 더불어 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주변 휴양 자원이 많은 이점도 있었다.

군위군은 일단 산촌 생태마을 사업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식 도입, 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원 개발, 생활 환경 개선, 개발 주체의 육성 및 지속적인 개발이 그 원칙이다.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위해 대상지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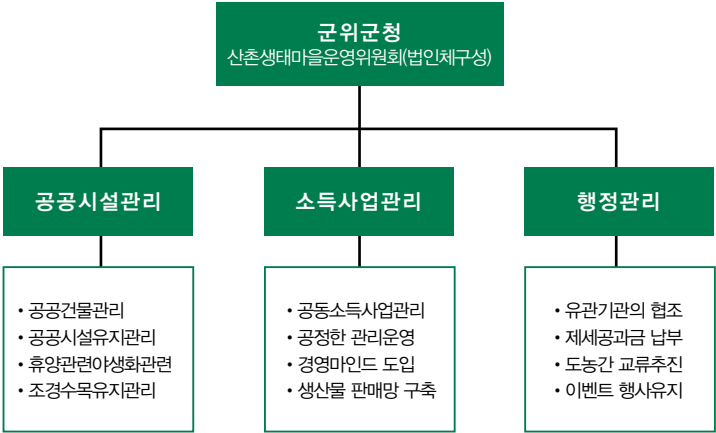


만 원시에 가까운 석산리의 생태계가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기타 시설도 모노레일처럼 자연과 부합되는 적정 규모의 개발만 시행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마을 안길과 진입로,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고 문화 복지 시설로서 마을회관, 복지회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시설 설치, 주민 공동 휴식 시설 설치 등을 추진했다. 관광객이 많아지면 환경 정화 시설도 중요한 만큼 쓰레기 처리장과 오폐수 처리 시설, 소화전 정비도 필수적으로 진행했다. 가로등, 마을 조경, 빈집 등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했다.

무엇보다 지역민의 관심은 소득원이 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임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품질 고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을 만들고 버섯, 산나물, 고로쇠 수액, 장뇌삼, 특산약용 식물, 특용작물 등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에 들어갔다. 여기에 흑염소와 토종닭, 한

| 공공시설, 소득사업, 행정관리 시스템 |



봉 등 가축 사육과 향토 음식점 등도 만들어 소득 사업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추진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촌마을 협의체와 군위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주민간담회와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 선견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를 주고, 산촌생태마을은 영위원회라는 법인체를 구성해 각종 관리를 맡겼다.

#### | 추진주체별 권한과 책임 |

추진 주체별	권한과 책임
경상북도지사	환경성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
군 위 군 수	사업대상지 선정, 관계법절차 이행
환경산림과장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조성사업
석산리 법인	시설물 사후 관리 및 운영, 주민자치규약 제정 및 운영

#### | 성과 지표 및 목표 달성도 |

연도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2007년	산촌생태마을대상지선정	1개소	100
2008년	설계용역 (기본, 실시, 환경성검토서)	각1식	100
2009년	기반조성(토목, 전기)	7,706㎡	100
	한방산림욕장조성	1개소	100
	산림체험시설(모노레일)	630m	100
	마을홈페이지 구축	1식	100
2010년	숙박시설	산촌문화체험관1동(184㎡) 이용객숙박시설3동(99㎡)	100
	체험시설	냉풍욕체험방3동(50㎡) 산악초체험단지조성1개소	100
	편의시설	종합안내판등 2개소	100

## 주민과 소통해야 사업 성공

석산리 산촌 생태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단계별 성과 지표를 수립했다. 이로 인해 2010년 현재 100% 목표를 달성했다. 2007년 산촌 생태마을 대상지 선정 2008년 설계 용역 2009년 기반 조성, 한방 삼림욕장 조성, 산림 체험시설 조성, 마을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지난해에 숙박시설, 체험시설, 편의시설을 목표한 바대로 모두 달성했다.

한편, 방문객을 위한 진입도로 확충 등의 과제가 남았는데 군위군은 이를 위해 군비 2천 8백만 원, 산수유 단지 조성을 위해 2천 6백만 원, 댐 주변 정비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환경 개선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해당 체험장을 찾게 하기 위해 홍보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위군은 이와 같은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이유를 주민과의 소통으로 꼽는다. 지역민의 협조와 단합이 없으면 지역 발전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우며, 지역민의 이와 같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신뢰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자연 환경과 고유한 특산품을 활용해 독자적인 차별화를 꾀하는 것, 이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말한다.